

2009학년도 경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계)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술 문제에 답하시오. 【시험시간: 120분】

(가) 역사, 언어, 민족 등 단일 문화를 유지해 온 우리 민족은 다른 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면이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비롯하여 집단 따돌림, 지역주의, 연고주의 등으로 극단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적 배타성은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 문화 등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다문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상이한 인종, 문화, 종교 집단이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의 태도를 가질 때에 가능하다. ‘우리과 같으면 문명인이고 다르면 야만인’이라는 태도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 다양성을 유지시켜 주는 원동력인 관용은 그 자체가 현대의 문화 양식이다.

(나) 근대 사회에서 차별이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정의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정치적 차원’인데, 여기서 차별이나 정의에 대한 논의는 주로 시민권이나 인권과 관련된다. 이것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생명권, 신체적 자유, 언론과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과 관련된 정치적 권리를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부여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적 차원’인데, 여기서 차별이나 정의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재화의 분배 또는 재분배와 관련된다. 이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 동등한 참여를 가로막는 경제적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나 경제적 차별의 문제를 다룬다. 셋째는 ‘문화적 차원’인데, 여기서 차별이나 정의에 대한 논의는 주로 문화적 정체성이나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다. 이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 동등한 참여를 가로막는 문화적 차별이나 문화적 정체성의 불인정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문제는 상호 작용을 하면서도 각각 자율성을 지닌 영역이다. 따라서 차별이나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다) 다문화주의는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을 보호하듯이 민족, 문화, 인종 집단을 보호하고 존속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집단들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을 그 집단들 중의 어느 하나에 자동적으로 소속시킨다.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조상과 혈통이며, 이로 인해 다문화주의는 개인들이 정체성을 바꾸고 싶을 경우에 그런 욕구를 반영해 주지 못한다. 다문화주의는 개인을 한 문화적 집단에 귀속시키며 한 가지 정체성을 강제로 부과한다. 다문화주의는 민족, 문화 공동체들 사이의 장벽을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특정 집단을 떠나기를 원하는 개인에게 장애물이 된다.

(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어디 출신이냐는 질문에 “나는 세계의 시민이다.”라고 답변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출신 지역이나 지역적인 집단 소속감에 의해 규정되는 것을 거부함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을 더 보편적인 열망과 관심의 관점에서 규정하기를 원했다. 스토아학파는 그의 사상을 받아들여 세계시민 이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스토아학파에 따르면 우리들은 두 공동체, 즉 출생과 관련된 지역 공동체와 보편적 인간성을 추구하는 세계시민 공동체에 살고 있는데, 후자가 진정으로 위대한 공동체이다. 세계시민 공동체는 우리들의 도덕적 책무의 원천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이다. 정의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들을 존중하여 우리는 모든 인간 존재를 우리의 동료 시민이나 이웃으로 간주해야 한다. 훌륭한 시민 교육이란 지역적,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세계시민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다.

(마)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소수자 집단에게 재정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특별한 문화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적 권리는 취약한 상태에 있는 소수자 집단이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여 다른 집단들과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소수자 집단의 보편적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소수자 집단의 문화적 권리가 내부 제재, 즉 내부 구성원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허용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전통적 관행이나 관습의 준수를 강요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등 개인의 자율성이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러한 집단의 문화적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바) 프랑스에서 불법 체류자를 지지하는 1996년의 시위자들은 “모두에게 체류 증명서를”이라는 구호를 널리 외쳤다. 이것은 모두가 자신들이 살고 일하는 나라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지녀야 한다는 것, 주민들의 법적 지위를 최근의 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자본 자체는 노동력의 이동성 증가와 국가 경계를 가로지르는 지속적인 이주를 요구해왔다. 세계의 중심 지역들(유럽, 미국, 일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은 종속 지역으로부터 노동자의 유입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주어야 한다.

【논술 문제】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한 편의 논술문을 작성하시오. 단, 아래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고, 서론과 결론도 구성할 것.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1,600~1,800자로 할 것)

- ▶ 제시문 (바)의 내용을 논의의 실마리로 삼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할 것.
- ▶ 아래와 같은 소수자들의 요구와 정부 기관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이민자가 정부 기관의 직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시험 일자가 자기가 속한 이민자 집단의 민족적·종교적 축제일과 겹치기 때문에 시험 참가가 불가능하니 시험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기관은 예정대로 시험을 치렀고, 그 사람은 출석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었다.